

IOC “도쿄올림픽 마라톤 샷포로 개최 검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년 도쿄올림픽 마라톤 경기를 홋카이도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날 “올림픽 마라톤과 경보를 홋카이도 샷포로에서 열 계획 있다. 샷포로는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도쿄보다 5~6 정도 기온이 낮다.” 고 발표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도쿄가 샷포로보다 800km 남쪽에 있다.” 고도 부연했다. 샷포로가 도쿄보다 훨씬 북쪽에 있으니, 선수들이 샷포로에서 경기를 하면 폭염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2020년 7월24~8월9일 한여름에 열릴 예정인 도쿄 올림픽은 폭염에 대한 우려가 이전부터 많았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 영향으로 일본에서는 최근 재해 수준의 폭염 현상이 나타나곤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에는 도쿄도 내에서 40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된 적도 있다.



▲IOC가 내년 도쿄올림픽 마라톤 경기를 무더위 때문에 샷포로에서 개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마라톤이 열릴 날의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주변 기온은 40도를 넘었다.

이때문에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지난해 7월 마라톤 출발 시각을 오전 7시 반에서 7시로 앞당겼다. 이후 다시 새벽 6시로 앞당겼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마라톤 출발 시각 변경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 장소 변경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열린 카타르 도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도하 육상선수권대회에서 폭염 대책으로 마라톤 대회를 한밤중에 열었지만 기온이 30도를 넘고 습도가 70% 이상인 환경 탓에 기권자가 속출했다.

다만 경기 장소를 샷포로로 실제로 옮기는 일은 일본에서 반대할 공산이 크다. 도쿄올림픽조직위는 올림픽을 위해서 새로 건설한 신국립경기장을 출발해 도쿄의 대표적 명소들인 아사쿠사 센소지, 긴자 등을 도는 코스로 마라톤을 열 계획이다.

월드컵 지역 예선 남북 축구 평양 경기 ‘무승부’

FIFA 회장 “무관중, 무중계’ 실망스럽고 놀라워”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15일 북한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 3차전 북한과의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거뒀다.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지역예선에서 남과 북이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날 경기는 무관중, 무중계로 진행돼 관중색이 텅 비었다.

이로써 한국 대표팀은 2승1무(승점 7·골득실+10)로 북한(승점 7·골득실+3)과 승점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H조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날 경기는 무관중, 무중계로 진행됐다. 경기 전날 경기 감독관 미팅에서는 북한에서 4만 관중을 예상했다고 한다. 지난 9월 레바논과 첫 경기에서 비슷한 수의 관중이 몰렸고 2-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관중 응원으로 압박하기에도 충분했다. 그런데 북한은 관중 관전을 포기했다. 보통 무관중은 관중 소요 사태나

부정적인 일을 저질렀을 경우 FIFA나 아시아 축구연맹(AFC) 등 기관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열린다. 이런 면에서 북한의 무관중 경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이날 경기를 지켜본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경기 후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적인 매치를 위해 꼭 찬 경

기를 볼 수 있길 기대했지만 관중이 전혀 없어서 실망했다.” 며 경기 생중계, 비자발급, 해외 언론의 접근권과 관련한 문제들도 놀라웠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에게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가장 중요한 문제” 라며 “한편으로 한순간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일일 것” 이라고 말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축구가 여러 사회 내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는 많은 것들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덧붙였다.

우즈, 자서전 ‘백(Back)’ 출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4·미국)가 자서전 ‘백(Back)’ 을 출간한다.

16일 AP통신에 따르면 우즈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백(Back)’ 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할 예정” 이라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고 전했다.

우즈는 “나에 대한 책이나 기사, TV 프로그램이 잘못된 정보로 채워진 경우가 많다.” 면서 “이 책은 내가 살아오면서 가진 생각이나 경험한 일들을 직접 표현했기 때문에 완벽할 것” 이라고 이야기했다.

우즈의 이번 책 제목은 그가 올해 마스터스에서 우



승하며 2008년 US오픈 이후 11년 만에 PGA 메이저 챔피언으로 부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자서전 출판사는 “골프 천재에서 인종 차별의 벽을 넘어서는 과정, 사생활 문제 등으로 괴로워하는 모습, 부상으로 괴로워하다 올해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는 순간 등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우즈는 과거 ‘1997년 마스터스, 나의 이야기(The 1997 Masters My Story)’ 와 2001년 ‘내가 골프를 하는 법(How I Play Golf)’ 책 집필에 관여하기도 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날말퍼즐 정답

1도	면		2풍	수	3설		
청			악		4날	5벼	락
도		6부	산	7물		슬	
8설	9명			10기	린	아	
	11성	화	12대			13치	14마
	황		15상	16실	감		이
17식	후	18경		뭉			동
		19영	구	치		20소	풍